



금속노조 단결투쟁, 자본·공권력 침탈 저지

1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실철거 막아 ... 23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열어

금속노조가 일본 먹튀자본 니트덴 다. 코, 한국 정부, 사법부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사무실 인도 강제집행을 투쟁으로 막았다.

금속노조는 2월 16일 오전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장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철거를 막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1천여 명이 모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입구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고, 조계종 스님들이 법회를 올렸고,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오전 8시쯤부터 현장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법원 집행관은 9시 40분쯤 노조 측에 강제집행을 고지했다.

금속노조는 경찰과 법원 집행관을 물러가게 한 뒤, 공장 안팎에서 대회를 이어갔다. 최현환 지회장은 “조합원 동지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고용승계 없이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고 외쳤다” 라면서 “금속동지들이 함께해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 라고 강조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언제 공권력과 용역이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오늘 투쟁의 기세를 이어 반드시 고용승계 쟁취하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공장 옥상 농성 중인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동지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 동지들 덕분에 고농성을 사수하고 있다” 라며 “반드시 고용승계 쟁취하고 승리해서 두 발로 내려가겠다” 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월 23일 14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년 투쟁 선포대회’ 를 동시에 개최한다.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결 촉구!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

경북지노위는
10명 조합원들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항쟁배임 범법자
기경도 대표 구속하라
노조탄압 막아내고
민주노조 사수하라

2024.02.22.목

15: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